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3. 11.(수)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법무부에서 조선업 비자 개선, 국민 고용 촉진, 광역형 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3. 11.(수) 울산**에서 **조선업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울산에서 조선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유입되어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민간위원 등이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논의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방안 논의

첫째,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내 외국인력의 유형(E-9, E-7-3, F-2, F-5 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저임금 구조, 지역경제 기여와 소비활동 미흡,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어려움 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조선업 외국인력 통계) ①전문인력(E-7-1) 약 400명, ②일반기능인력(E-7-3) 약 13,000명, ③비전문취업(E-9) 약 8,000명, ④그 외 거주(F-2) 및 영주(F-5) 등 약 4,800명임(붙임 1)

※ (울산지역 생산직 외국인력 추이) ①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E-9) ('22) 4,725명 → ('25) 8,148명, ②일반기능인력(E-7-3) ('22) 252명 → ('25) 4,339명, ③숙련기능인력(E-7-4) ('22) 76명 → ('25) 762명

회의에 참석한 조선업계 노조연대는 현재의 노동여건 개선 없이 외국인력의 실질적인 정주 유도가 어려우므로,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사회·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하여 **가족과 동반 거주하며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집단에서는 단기적 취업이나 임시적 체류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전제로 보다 안정적인 체류와 노동을 통해 **장기적인 삶의 경로를 기획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 (2025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울러,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 및 임금 수준을 **제도 완화 이전의 수준으로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①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30% → 20%
② (임금 하한기준) 최저임금 수준(신규 1 ~ 3년차) → GNI 80%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하고 지역·민생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연계됨으로써 **외국인력 활용이 국민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조선업계 국민 고용 촉진노력 확인 및 국민·외국인 상생방안 협력

둘째, 조선업계의 국민 고용 촉진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외국인 상생 방안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4년 10월** 일반기능인력(E-7-3)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완화할 **당시,** 국민 고용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함께 제시하였고, 기업들은 **국민 '생산직' 채용을 확대**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붙임 2)

※ ('24. 10월 조선업계의 국민 채용계획) '24. 12월말부터 25. 12월말까지 1년 동안 생산직에 국민 5,212명(직영 1,129명,사내협력 4,083명)을 채용하고,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음

최근 법무부의 점검 결과, 국민 채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계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위험·고강도 업무라는 조선업 특성 등으로 인해 국민 **생산직 인력의 고용 유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3년 간 국민 생산직 고용 인원은 ('23) 87,601명 → ('24) 78,141명 → ('25) 72,021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원사 기준)

조선업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선업 분야에 국민 고용 확대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고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울산 광역형 비자의 현안 의견 청취 및 평가방향 논의

마지막으로, 울산 광역형 비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유지 여부 검토를 위한 평가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울산 광역형 비자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전문취업(E-9) 등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기간이 아직 짧고 유입된 인원(울산 133명)이 적어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의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 및 객관적 평가 절차를 거쳐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참석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목소리를 가졌지만, **국민과 민생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을 바라는 마음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부서	광역형 비자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병철	(02-2110-4217)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2-2110-4364)
	일반기능인력 (E-7-3)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장	이향숙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김진겸	(02-2110-4067)
	국민고용 이행점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재형	(02-2110-4105)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02-2110-41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관련 통계**

1 [전국] 조선업 외국인력 관련 통계

☞ **조선업 종사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① **전문인력(E-7-1) 약 400명**, ② **일반기능인력(E-7-3) 약 13,000명**, ③ **단순노무인력인 고용허가제(E-9) 약 8,000명 등**으로 구분

☞ 전체 **기능직 근로자**(내·외국인) 중 **외국인 비중은 약 23%** (약 2.3만명)

※ 그 외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인 거주(F-2), 영주(F-5) 자격 등은 조선업에 취업이 가능하며, 약 4천 8백명이 조선업(직영+사내협력사)에서 종사 중

1. 조선업 일반기능인력(E-7-3) 체류 외국인 수(광역형 비자 포함)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2월
체류외국인 수	1,017	7,582	11,200	13,297

2. 조선업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 수(울산형 고용허가제 포함)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체류외국인 수	1,698	3,180	5,615	7,608	8,079

※ 사내협력사 포함된 인원

2 [울산] 조선업 등 외국인력 관련 통계

1. 조선업 일반기능인력(E-7-3) 체류 외국인 수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2월
체류외국인 수	30	249	2,550	3,874	4,334

2. 전체 외국인근로자 체류 외국인 수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전문취업(E9)	4,275	5,940	7,223	8,148
일반기능인력(E73)	252	2,553	3,875	4,339
숙련기능인력(E74)	76	308	524	762

※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직종의 체류인원

3 광역형 비자 통계

1. 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쿼터

(단위 : 명)

구분	유학(D-2)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쿼터	250	1,000	60	240	770	830	250	670	280	250	**4,600**

구분	특정활동(E-7)					계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쿼터	100	440	630	350	670	**2,190**

2. 울산 광역형 쿼터 및 비자 등 발급 현황 ('26년 2월 기준)

(단위 : 명)

지자체	울산
쿼터	440
추천서발급	137
체류인원	133

붙임 2 조선업계에서 제출한 **「조선산업 국민고용 관련 노력 계획」** ('24. 8.)

□ 검토 배경

○ E-7-3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업계 외국인 숙련공 도입 확대 시, 구인난 해소 및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일부 환원 필요성** 제기

○ 외국인 고용을 통해 조선산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 확대** 및 **내국인 숙련공 유지**를 위한 **업계 노력** 필요

□ 국민고용 관련 노력 계획(조선협회)

○ 내국인의 조선업계 근속 유도를 위해 비용절감분의 일부를 **성과 인센티브제 확대**와, **신규 입사자 복지수준 향상**를 위해 활용 예정

○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의 조선사 유입 수요를 높여 **'25년까지 5,212명의 내국인 생산직 채용 예정**(직영 1,129명 및 협력사 4,083명)

○ 또한 내국인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선사 원청과 협력업체는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연 확대**도 검토 계획

* 의료비 지원, 숙소/생활용품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확대 등

<참고: 주요 조선사 내국인력 고용계획>

구 분	'24.12월말	'25.6월말	'25.12월말	합계
직 영	471	354	304	1,129
협력사	221	1,882	1,980	4,083
합계	692	2,236	2,284	5,212

※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❶외국인 **전용 숙소** 운영, ❷외국인 **기능 대회 개최 및 포상**, ❸**근로환경 개선** 지원(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 등 예정